

지역 소식통

부안 남주골 스마트 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 완료

부안군 부안읍은 2025년 남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곳곳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주민 생활 속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안읍 남주골 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위험지역 예찰은 예찰반의 현장 활동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부안을 관내 소하천 8개소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세심한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가스 안전점검은 약 600여 세대, 전기 안전점검은 약 200여 세대 대상 진행됐다.

부안을 관계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전북 고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인 종합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고창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군단위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과도 및 노력도 부문 모두 군단위 지자체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군수 주재로 관리직 공무원 간담회·조직문화개선 전략회의 등을 열어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도 향상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주요정책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 내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인허가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우수기관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여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후 총실시 이행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학산고 통학로 지중화 완료... 전신주 철거·보행 공간 확충·지역민 체감 만족도 ↑

엷고설린 전선과 투박한 전신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던 학산고등학교 통학로가 전선 없는 쾌적한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정읍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산고등학교 통학로 일대 지중화 공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에 묻고,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원인이었던 전신주와 통신주를 철거해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구간은 학산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현대2차 아파트 앞까지 약 400m다. 시는 이 구간의 정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KT 및 통신 6개사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총사업비



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약 39억원이 투입됐으며, 시와 각 기관이 비용을 공동 부담했다. 공사는 올해 3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9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이달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자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활 도로인 해

당 구간에서 전신주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전선에 가려져 답답했던 시야가 확보돼 도시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시는 지중화 작업과 함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비좁았던 보도폭을 확장하는 등 도로 환경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야간 보행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중화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동시에 개선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표창

꼼꼼한 예산 감시로 23억 절감... 감사과 기술감사팀·정보통신과 진석우·건축과 윤세희 주무관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비용 구조 분석과 물량 검토, 단가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4건의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2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



뒀다. 분야별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과 기술감사팀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 심사로 18억 7000만원 예산절감을 이끌었다.

이들은 제비율과 설계 물량, 자재 산정 오류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다하게 계산된 사업비를 조정했다. 정보통신과 진석우 주무관은 정보통

신 분야의 설계와 자재, 단가 항목을 세밀하게 검증해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자재 변경과 단가 적합성 검토 등 정보통신 기술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통해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으며, 향후 관련 분야 단가 체계의 표준화 가능성은 높이는 지속 절감형 구조를 마련했다.

건축과 윤세희 주무관은 기계와 전기, 문화재 분야의 설계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3억 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이번 성과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사전 검증과 책임 있는 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세계 기후 관측망 공식 등록

고창군과 기상청은 대산면에 위치한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소속)'가 세계 기후 관측망에 공식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각국의 표준화된 기상·기후 관측 자료를 수집·공유하는 국가 체계다. 이번 등록을 통해 고창 표준기상관측

소에서 관측되는 기후자료는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공식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 입장에서 폭설·폭우·폭염 등 기상상황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높아져 겨울철 적설 대응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기상관측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상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측해 장기 기후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축적된 관측자료는 재난 대응과 농업·환경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인재 육성 위해 '한마음 한뜻'

공무원부터기업인까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소중한 장학금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공직자들의 포상금과 지역 기업인 및 예술인의 진심 어린 기부가 이어지며,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정읍의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30일 시청 내 주요 부서와 청년 혁신 모임으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내장상동 주민센터(동장 박은주)와 수성동 주민센터(동장 김수홍), 소성면사무소(면장 고준석) 직원들이 각각 100만원씩 뜻을 모았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이병택) 직원들도 100만원을 보냈다. 또한 문화행정국 소속 청년 혁신 모임인 '정읍새로고침(F5)'도 연구 활동 삼금 30만원을 전액 기탁하며 힘을 보탤다.

기탁된 장학금은 공직자들이 올 한 해 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내장상동과 수성동, 소성면 직원들은 읍면동 종합 행정실적 평가 및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받은 포상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업정책과 직원들 역시 2025년 자체 감사 결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기쁨을 지역 학생들과 나누기로 했다.

젊은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장학금으로 이어졌다. 문화행정



국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정읍새로고침(F5, 팀 대표 최정우)' 팀은 '정읍형 서무실록 구축을 통한 행정지식 공유체계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가 최우수팀으로 선정되며, 삼금 전액을 기부하며 "정읍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독지가들의 꾸준한 나눔도 훈훈함을 더했다. 사단법인 한국고고장구진흥원 정읍지회의 신채영 지회장은 지난 27일 연지아트홀 공연 현장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지회장은 2014년부터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9일에는 연지동 토목 설계업체인 (유)삼오기술사의 박종근 대표가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 대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7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정읍장학수립 당시에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등 남다른 애정함을 보여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연말연시 잇따른 기부 행렬

내장사·더샘밴드·현애남 라인댄스 성금 기탁 동참

정읍시에 지역사회의 온정을 더하는 기부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30일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와 더샘밴드, 현애남 라인댄스는 정읍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잇달아 기탁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주지대원 스님)는 성금 7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내장사는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꾸준한 봉사와 기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내장사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부처님의 지비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의 나눔도 이어졌다. 더샘밴드(대표 이기화)와 연지체육회는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 136만원을 기탁했다. 이기화 대표는 "음악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받은 사



람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애남 라인댄스도 회원들이 심시일만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현애남 지부장은 "회원들과 함께 모은 정성이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 생활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